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 결승 경기가 열린 27일(현지시각)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노(GBK) 양궁경기장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강채영이 대만과 경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6연패 금자탑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장혜진 두 대회 연속 금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6회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은경(21·순천시청), 강채영(22·경희대), 장혜진(31·IH)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 대표팀은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라라 봉 카르노(GBK) 양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대만을 세트스코어 5-3(55-53 53-55 58-58 54-53)으로 꺾었다.

한국 여자 양궁은 1998년 방콕대회부터 이종목 6연패에 성공했다. 개인전과 혼성전에서 모두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 세계랭킹 1위 장혜진은 부담을 딛고 동생들과 금메달을 합작했다. 강채영과 이은경은 개인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이 경기 전까지 노골드로 애를 태웠던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국은 이은경·강채영·장혜진 순으로

표적을 겨냥했다. 이은경의 10점으로 패조의 시작을 알린 한국은 장혜진이 45-53에서 10점을 쏘 1세트를 따냈다. 2세트는 대만이 가져갔다. 장혜진, 이은경이 8점에 그친 사이 대만 선수들이 고득점을 이끌어내며 세트스코어 2-2 균형을 맞췄다. 3세트는 결승전 단계 치열했다. 한국은 28-29에서 이은경, 강채영, 장혜진이 모두 10점에 적중시켜 승리를 눈앞에 뒀다. 이에 질세라 대만 역시 세 선수가 29점을 합작, 58-58을 만들었다. 두 팀이 1점씩을 나눠가지면서 세트스코어는 3-3

이 됐다. 마지막 4세트에서 한국은 초반 3발 26점에 그쳤다. 대만이 27점을 쏘면서 패배의 기운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순한 경쟁으로 다져진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은경과 강채영이 9점씩을 쏘고, 마지막 주자 장혜진이 10점으로 명중시켰다. 장혜진의 10점은 승부의 큰 변수가 됐다. 최소 27점이 필요했던 대만은 첫 주자가 8점에 그쳐 흔들렸다. 나머지 두 선수 모두 9점을 쏘면서 한국의 1점차 승리가 확정됐다. /뉴시스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

남자 1000m 동메달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이 아시안게임 마지막 종목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카누 남자 단일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 조정 카누 레가타 코스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 용선 1000m 결선에서 4분36초45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 나온 단일팀 세번째 메달이다. 앞서 카누 용선 단일팀은 여자 200m와 500m에서 각각 동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했다.

시작은 좋지 않았다. 남자 단일팀은 이날 1000m 예선 1조에서 5분21초100으로 1조 6위로 밀렸다. 그러나 단일팀은 패자부활전에서 4분44초730으로 기록을 단축하며 준결선에 진출했다.

단일팀은 준결선에서 4분40초013으로 2조 2위로 결선에 올랐다.

단일팀은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과의 결선에서 대만(4분31초185), 인도네시아(4분34초947)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뉴시스



"아시안게임은 내가 주인공"... 골 넣고 기뻐하는 황의조 27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브카시 패트리엇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한국 황의조가 두 번째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남자농구, NBA 클락슨이 버틴 필리핀 꺾고 준결승행

라건아 30점 14리바운드

8강전서 91-82로 승리 거뒀다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조던 클락슨(클리블랜드)이 버틴 필리핀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대표팀이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라라 봉 카르노(GBK) 농구장에서 벌어진 필리핀과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9-82로 승리했다.

30일 이란-일본의 8강전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귀화선수 라건아가 30점 14리바운드로 골밑을 사수했고 이승현(11득점 12리바운드 4어시스트), 허일영(17득점 6리바운드), 김선형(17득점 10어시스트 7리바운드)이 고르게 지원했다.

필리핀은 대회를 앞두고 NBA 선수 클락슨의 합류로 분위기를 끌어 올렸지만 한국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클락슨은 3점슛 4개를 포



27일(현지시각)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노(GBK) 농구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한국과 필리핀의 8강 경기. 한국 라틀리프가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

함해 25점(8리바운드)을 울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점점이 펼쳐진 3쿼터에서 15

점을 몰아쳤다.

클락슨은 미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015년부터 줄곧 필리핀 대표팀 합류 여부를 관심을 모았지만 국가대표로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장 196cm의 클락슨은 지난 시즌 LA 레이커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뛰며 평균 13.9점 3.2리바운드 2.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공격력이 매우 뛰어난 가드다.

중국과의 조별리그에서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홀로 28점을 쓸어 담으며 중국을 버팀목까지 몰았다. 필리핀은 중국에 80-82로 석패했다.

하지만 허 감독은 필리핀이 약한 지역방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큰 고비를 넘겼다.

한국은 1쿼터에서 허일영의 외곽포와 라건아의 골밑 득점으로 17-7까지 앞서며 주도권을 잡았다. 허일영은 3점슛 2개를 포함해 7점을 올렸고, 라건아도 7점 5리바운드로 페인트 존을 사수했다.

1쿼터에서 22-18로 앞섰다. 그러나 필리핀은 2쿼터 들어 속공과 외

곽포로 분위기를 바꿨다. 달리스탄, 프링클의 외곽포가 터지면서 수비에 애를 먹었다. 2쿼터에 42-44로 뒤지며 마쳤다.

3쿼터에서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한국이 라건아, 김선형, 허일영, 이승현으로 고르게 공격을 풀었다면 필리핀은 클락슨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클락슨은 3쿼터에서 3점슛 3개를 포함해 15점을 몰아쳤다. 공을 잡으면 기습적으로 더블탈을 가는 수비를 펼쳤지만 쉽지 않았다.

64-65로 뒤지며 4쿼터를 맞은 한국은 라건아의 높이와 허일영, 전주범의 3점포로 전세를 뒤집었다.

한국은 김선형이 3점포를 터뜨린 뒤 돌파에 이은 골밑슛과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경기 종료 4분 여 전 83-74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한국은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전주범이 3점포를 작렬, 89-76까지 앞서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필리핀은 클락슨의 3점포로 점수차를 좁혔으나 이후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한국에 승기를 내줬다. /뉴시스



여자 핸드볼, 40-13으로 태국 꺾어... 결승행

'아시아 최강' 한국 여자핸드볼이 가뿐히 결승에 안착했다.

이계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포키 제부부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핸드볼 준결승전에서 태국을 40-13으로 꺾었다.

조별리그를 4전 전승으로 통과한 여자 대표팀은 태국마저 넘고 결승에 안착했다. 여자 대표팀은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2연패이자 통산 7번째 우승을 노린다. 여자 대표팀이 이종목 우승을 놓친 것은 2010년 광주우대회가 유일하다. 당시 3위에 그쳤다.

여자 대표팀은 한 수 아래인 태국을 맞아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전반을 16-7로 앞서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최수민(서울시청)이 9골을 넣었고, 김선화(SK슈가글라이더즈)가 8골로 지원했다.

여자 대표팀은 일본-중국전 승자와 30일 금메달을 다툰다.

남자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카타르에 20-27로 패했다. 8년 만에 우승을 노렸으나 카타르의 벽에 가로 막혔다. 남자 대표팀은 전반을 7-13으로 뒤진 채 마쳤다. 후반 들어 힘을 내봤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4년 인천 대회 결승에서 우리를 울린 카타르는 또 다시 남자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 /뉴시스

익산지역 다채로운 체육행사 성황

회장기 유도대회·서동축제기념 공도대회 등

지난 25일과 26일 익산지역에서는 다양한 체육행사가 열렸다.

25일 제9회 익산시장기 겸 회장기 유도대회가 익산시유도회 주관으로 원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유도를 사랑하는 동호인 500여 명이 남녀 초·중고, 일반부 8개부 체급별로 나누어 참가했다.

또한 참가 선수들 모두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후회 없는 멋진 승부를 펼쳤으며 앞으로도 유도 종목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6일에는 2018 서동축제기념 전북도 공도대회가 익산시 공도협회 주관으로 건덕정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400여 명의 선수들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일반부, 노년부, 여성부로 참가하여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높은 수준의 공도 실력을 선보여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시 관계자는 대회 준비에 애쓰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극심한 무더위로 지쳤을 심신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체육 행사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익산시 생활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순창 스포츠마케팅, 농어촌민박업체에도 활력

순창군이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이 효과를 내면서 지역 농어촌민박업체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유소년야구대회 등 대규모 대회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순창군의 입장에서 읍면단위 민박에도 선수단 등 관계자들이 머물면서 민박업체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해서 군은 지난 23일 지역 농어촌민박업체대표 20여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박사업자의 자제와 역할, 농어촌민박 관련법규 해설 및 사업자 준수 사항 안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자 상호간 민박업체 발전방향 토의 및 의견수렴도 진행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민박사업 활성화에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됐다.

순창군 체육관계자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전국유소년야구대회의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민박업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민박업체에서도 특색있는 체험거리를 개발하고 고객층에 따라 마케팅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길 민박업체 회장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대규모 대회를 유치해 농어촌민박에까지 손님이 불릴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바가지 요금 근절 등 민박업체에서도 자체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은 연중 대회일정을 공지하고 유소년야구대회 뿐 아니라 대규모 대회 유치를 위해 농어촌민박업체와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